

【논문】

## 경방의 벽패설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

방 인

【주제분류】 한국유학, 유가철학, 중국철학

【주요어】 정약용, 경방, 벽패, 당서패기론, 음양재변설, 분패직일법

【요약문】 이 논문의 목적은 경방의 벽패설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을 서술하는 데 있다. 정약용의 추이설은 벽패설을 기반으로 해서 전개되는 이론인데, 정약용의 14벽패설의 근원은 경방의 12벽패설에 소급된다. 정약용은 경방역으로부터 벽패라는 용어를 차용하였으나, 경방의 벽패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비판적 관점을 유지했다. 경방의 벽패설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은 『역학서언』의 『한위유의론』·「당서패기론」·『반고예문지론』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특히 「당서패기론」은 경방의 벽패설과 분패직일법에 대해 상세한 비평을 가하고 있어서, 다산역과 경방역의 관계를 해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필자는 이처럼 흩어져 있는 자료를 종합함으로써 경방역에 대한 정약용의 비평적 관점을 재구성해 내하고자 하였다.

제2장 ‘경방역학의 특징과 역학사적 지위’에서는 『한서』 「유림전」과 「경방전」의 두 개의 전기 자료를 중심으로 경방역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하고자 하였다. 경방역의 특징은 음양재변설에 있는데, 정약용은 경방역을 좌도(左道)와 사벽(邪僻)에 빠진 술수라고 혹평하였다.

제3장 ‘벽패설의 기원에 대한 고찰’에서는 벽패설의 기원에 대한 정약용의 견해를 고찰하였다. 역학사에서 경방은 벽패라는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정약용은 벽패라는 용어가 경방 이전에도 옛적부터 사용된 명칭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원을 『주역』의 성립시기로 소급시키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정약용이 자신의 추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문헌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제4장 ‘벽패설과 분패직일법에 대한 비판’에서는 경방의 벽패설과 분패직일법

에 대한 정약용의 견해를 고찰하였다. 경방은 64괘를 한대(漢代)의 신분제적 질서에 상응하는 벽(辟)·공(公)·후(侯)·경(卿)·대부(大夫)의 품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러나 정약용에 따르면, 벽괘(辟卦)가 군주괘(君主卦)라는 의미는 천자만이 벽괘를 전용(專用)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정약용은 벽괘를 군주괘로 설정한 데에는 마치 군주가 신하를 통치하는 것처럼, 벽괘가 중심괘가 되어 그 밖의 나머지 괘들의 변화를 통제한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정약용은 경방의 분괘직일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파쇄(破碎)된 이론이며, 역가(易家)의 부장(鄙障)이라고 혹평하였다. 요컨대, 경방은 자질구레한 학설을 이리저리 끌어다 붙여 분괘직일법 등의 이론을 만들어 내었으나, 어느 것 하나도 이치에 합당한 것이 없으며, 역가의 이단(異端)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약용의 비판이다.

## I. 서론

전한(前漢) 시대의 역학자 경방(京房, BC.77~BC.37)은 역사(易詞) 해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상수역의 이론적 발전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sup>1)</sup> 다산역과 경방역의 관련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약용의 추이설(推移說, 즉 卦變說)은 벽괘설을 기반으로 해서 전개되는 이론인데, 경방은 역학사에서 벽괘(辟卦)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산역의 추이설에서 근간이 되는 14벽괘는 경방의 12벽괘에 소과(小過)·중부(中孚)의 두 괘를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다산역과 경방역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정약용이 경방으로부터 영향 받은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다산역의 벽괘설이 경방역의 벽괘설과

1) 경방역에 관한 연구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盧央, 『京房評傳』, 南京大學出版社, 南京, 2006. (2)盧央, 『京房易傳解讀』, 上下, 九州出版社, 北京, 2006. (3)郭彧, 『京氏易源流』, 華夏出版社, 北京, 2007. (4)張文智, 『孟·焦·京易學新探』, 齊魯書社, 2013. (5)冒廣生, 『冒鶴亭京氏易三種』, 四川出版集團, 巴蜀書社, 2009. (6)윤태현, 『경방역의 연구』, 동국대, 2000. 그밖에 괘기설(卦氣說)과 관련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1)梁韋弦, 『漢易卦氣學研究』, 齊魯書社, 2007. (2)문재근, 한대역학(漢代易學)의 연구-괘기(卦氣)역학의 전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1990.

다르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효변설(爻變說)과 관련하여 정약용은 『주역사전』에서 경방의 주(注)에서 효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세 개의 효사를 언급하였다. 정약용은 경방과 더불어 효변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인물로서 가의(賈誼, BC.200~BC.168)를 언급하였다. 가의가 세상을 떠난 해인 기원전 168년은 마왕퇴 3호묘의 묘장연대이기도 하다. 마왕퇴 백서 『주역』에 ‘모괘지모괘’의 형태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때, 효변설은 기원전 168년 무렵 혹은 그 이전에 유포되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효변설은 『춘추좌씨전』에 ‘모괘지모괘(某卦之某卦)’라는 형태로 등장한 이후 그 역학사적 발전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론이다. 만약 가의 시대에 효변설이 유행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면, 효변설은 가의 이후 경방에 이르기까지 백여년간 전승되어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는 서한(西漢) 시기에 효변설의 전승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를 제공한다.

다산역과 경방역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 주제는 나름대로 매우 중요하며, 전문적으로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두 주제를 하나의 논문에 포괄하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첫번째 주제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sup>2)</sup>

정약용의 저술 중에서 경방역에 대한 언급은 『주역사전』과 『역학서언』에 산재(散在)되어 있다. 경방의 벽괘설과 관련된 언급은 『역학서언』의 『한위유의론(漢魏遺義論)』·「당서괘기론(唐書卦氣論)」·『반고예문지론(班固藝文志論)』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그 가운데 「당서괘기론」은 분괘직일법에 대해 상세한 비평을 가하고 있어서, 다산역과 경방역의 관계를 해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필자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함으로써 경방역에 대한 정약용의 평가를 재구성하려고 한다.

필자가 본고에서 다루게 될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경방역학의 특징과 역학사적 지위’에서는 『한서(漢書)』 「유림전(儒林傳)」과 「경방전(京房傳)」에 실려 있는 두 개의 전기(傳記) 자료를 중

2) 경방의 효변설에 대한 정약용의 견해에 관해서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拙稿, 「다산역의 관점에서 본 경방의 효변설」, 『철학연구』, 제131집, 대한철학회, 2014년 8월).

심으로 경방역의 특성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 두 자료는 『역학서언』 중에서 「반고예문지론」과 「당서패기론」에서 각각 인용되고 있는데, 필자는 이 두 자료에 근거해서 정약용이 경방역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3장 ‘벽괘설의 기원에 대한 고찰’에서는 벽괘설의 기원에 대한 정약용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역학사에서 벽괘라는 명칭의 최초의 사용자는 경방이다. 그런데 정약용은 벽괘라는 명칭의 기원을 『주역』의 성립시기에까지 소급시키고 있다. 필자는 정약용이 자신의 추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문헌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정약용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제4장 ‘벽괘설과 분괘적일법에 대한 비판’에서는 경방의 벽괘설과 분괘적일법에 대한 정약용의 견해를 서술할 것이다. 경방은 64괘를 한대의 신분제적 질서에 상응하는 벽·공·후·경·대부의 품계에 따라 구성하였는데, 필자는 「당서패기론」을 중심으로 정약용의 비판적 관점을 소개할 것이다.

## II. 경방역학의 특징과 그 역학사적 지위

역학사에는 경방(京房)이란 이름을 가진 인물이 두 사람 등장한다.<sup>3)</sup> 한 사람은 한나라 선제(宣帝) 때 사람으로 양하(楊何)의 제자이면서 양구하(梁丘賀)의 스승이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한나라 원제(元帝) 때 초연수(焦延壽, 즉 초공(焦贛)의 제자로서 본성(本姓)이 이씨(李氏)이며, 자(字)가 군명(君明)이다. 두 사람은 서한(西漢) 시기의 인물로서 모두 역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양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역학사에서 더욱 빈번하게 언급되며, 벽괘설과 관련된 인물은 후자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한서』에는 두 개의 전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는 「유림전(儒林傳)」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경방전(京房傳)」에 있다. 『역학서언』에서 두 개의 전

3) 盧央 著, 『京房評傳』, 1~2쪽, 南京大學出版社, 南京, 2006.

기자료는 각각 「반고예문지론」과 「당서괘기론」에서 인용되고 있으므로, 두 자료를 중심으로 경방역에 대한 정약용의 평가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p>경방(京房)은 양(梁)나라 사람 초연수(焦延壽)에게 『역』을 배웠는데, 초연수는 “일찍이 맹희(孟喜)에게 『역(易)』을 문의하여 배웠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맹희가 죽자, 경방은 자신의 스승인 초연수의 역학이 맹희의 역학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적목(翟牧)과 백생(白生)은 수긍하지 않고, 같지 않다고 하였다. 성제(成帝)때 유향(劉向)이 교서(校書)를 하면서 여러 역설(易說)을 고증하였는데, 제가(諸家)의 역설이 모두 전하(田何)·양숙(元)(楊叔[元]); 즉 양하(楊何)·정장군(丁將軍)을 시조로 하고 있어, 그 대의(大誼)가 대략적으로 동일하였지만, 오직 경방의 역설만 이와 다르다고 하였다. 아마도 초연수가 어느 은사(隱士)의 역설을 홀로 얻어 익히고는 그것을 맹희에 가탁(假託)하였기에 서로 다르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경방은 재이(災異)에 밝아 임금의 총애(幸)를 받았으나, 석현(石顯)의 참소를 받아서 주살(誅殺) 당하였다.(『漢書』, 「儒林傳」)<sup>4)</sup></p>	<p>경방(京房)은 자(字)가 군명(君明)이다. 역학(易學)을 공부함에 양(梁)나라 출신인 초연수(焦延壽)를 모시고 배웠다. 초연수는 자(字)가 공(龔)인데, …항상 말하기를 “나의 도(道)를 배워 몸을 망칠 자는 반드시 경방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초연수의 역설(易說)은 제양이나 변괴를 예언하는데 뛰어났고, 64괘를 나누어 곧바로 직일용사(直日用事)하는 데 적용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풍(風)·우(雨)·한(寒)·온(溫)을 후(候)로 삼아 각각 점험(占驗)이 있게 하였다. 경방은 초연수의 설을 이용하여 그것을 더욱 정밀하게 만들었다. …[변방의 반란과 일식이 있었는데] 여러 번 상소(上疏)를 올려 장차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예언하였는데, 가까이는 몇 달, 멀리는 일년 뒤까지 예언한 것이 여러 차례 적중하여 천자가 기뻐하였다.(『漢書』, 「京房傳」)<sup>5)</sup></p>
---	---

위에서 인용한 『한서』의 전기(傳記)에서는 경방을 초연수(焦延壽, 즉 초공(焦贛)의 제자라고 서술하고 있다. 다만 「유림전」에서는 초연수가 맹희(孟喜)로부터 실제로 『역』을 전수받았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초연수가 맹희로부터 『역』을 배웠다고 주장하였고, 그 제자인 경방도 여기에 동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맹희의 제자인 적목(翟牧)

4) 京房受易梁人焦延壽, 延壽云, “嘗從孟喜問易”. 會喜死, 房以爲延壽易即孟氏學, 翟牧白生不肯, 皆曰非也. 至成帝時, 劉向校書考易說, 以爲諸易家說皆祖田何·楊叔元·丁將軍, 大誼略同, 唯京氏爲異, 黨焦延壽獨得隱士之說, 託之孟氏, 不相與同. 房以明災異得幸, 爲石顯所誅譖.(『漢書』, 「儒林傳」11, 傳五, 3601-3602쪽, 中華書局; 「班固藝文志論」, 『易學緒言』, 77~78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5) 房, 字, 君明. 治易, 事梁人焦延壽. 延壽, 字, 贛, 常曰, “得我道以亡身者, 必京生也.” 其說, 長於災變. 分六十四卦, 更直日用事. 以風雨寒溫, 爲候, 各有占驗. 房, 用之尤精, 數上疏, 先言其將然, 近數月, 遠一歲, 所言屢中, 天子說之.(『漢書』, 10, 傳四, 3160쪽, 中華書局; 「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19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과 백생(白生)은 그 주장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향(劉向)이 천록각(天祿閣)에서 교서(校書)를 할 적에 역서(易書)를 고증하였는데, 제가(諸家)의 역설(易說)이 모두 전하(田何)·양하(楊何)·정장군(丁將軍)을 조종(祖宗)으로 삼고 있어 그 대의(大誼)가 대략적으로 동일하였으나, 오로지 경방은 이와 달랐다고 말했다는 점에 「유림전」의 저자는 주목하였다. 「유림전」에서는 이처럼 경방역이 차별적 특징을 보이게 된 이유를 경방의 스승인 초연수의 학문적 계보에서 찾았다. 「유림전」에 따르면, 초연수는 자신이 맹희의 제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어느 은사(隱士)의 역설(易說)을 홀로 얻어 익히고서는 그것을 맹희의 학설에 가탁(假託)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은사의 정체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어쨌든 경방 학설의 독자적 계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제 경방역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경방역의 중요한 특징은 음양재변설(陰陽災變說)에 있다. 음양재변이란 『주역』을 활용하여 재앙과 변고(變故)를 점치는 것을 가리킨다. 한대 이전에는 『주역』을 재이(災異)와 연계시키는 일이 별로 없었으나, 맹희가 재이설에 바탕을 둔 괘기설(卦氣說)을 전개하면서 음양재변설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sup>6)</sup> 서한 시대의 역학자인 맹희(孟喜)·초공(焦贛)·경방(京房) 등은 모두 음양재변설에 바탕을 둔 역학이론을 전개하였다.<sup>7)</sup> 경방은 천문을 관측하여 절기의 변화와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운행을 인간사의 길흉과 밀접하게 연결시켜 재이를 예언하였다. 실제로 경방은 낭중(郎中)이 되어 금중(禁中)에 있을 때, 재변(災變)이 있을 것을 여러 번 예측하여 원제(元帝)의 총애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경방은 권신(權臣) 석현(石顯)을 제거하려다 실패하고 지방 수령으로 좌천되면서 추위와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실제로 홍수가 있게 되자 글을 올려 그 재변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방의 수령으로 내려가자 맡고 금중(禁中)에 머물러야 한다고 청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주역』을 미래를 점치는 점후(占候)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정약용은 경방역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6) 윤태현, 『경방역의 연구』, 4쪽, 동국대, 2000.

7) 郭彧 著, 『京氏易源流』, 5쪽, 華夏出版社, 北京, 2007.

음양재변이란 『경방전』에서 거론된 바처럼 몽기(蒙氣)<sup>8)</sup>와 햇무리[日輝]로써 인사(人事)를 점치고, 소식괘(消息卦)와 신하괘(臣下卦)의 상호작용으로써 재앙[孽]을 판단하는 것 따위를 말한다. 이런 점술은 본래 맹희로부터 생겨나서 경방이 증식(增飾)시켰을 뿐이다. 이는 역가(易家)의 이단(異端)이니, 경방이 이로 말미암아 그 몸을 망친 것도 당연하지 않겠는가?<sup>9)</sup>

분괘직일법은 경방 역학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정약용은 「유림전」의 설을 좇아서 분괘직일법이 비록 맹희에 가탁하고 있기는 하지만, 맹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며,<sup>10)</sup> 경방과 초공(焦贛, 즉 초연수焦延壽)으로부터 나온 설이라고 보았다.<sup>11)</sup> 따라서 정약용은 분괘직일법이 전하(田何)와 정관(丁寬)의 구법(舊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sup>12)</sup> 수사(洙泗)의 적전(嫡傳)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sup>13)</sup> 요컨대 분괘직일법은 역가(易家)의 부장(蔽障: 참된 진실을 덮고 가로막는 것)에 불과하다. 정약용에 따르면, 만약 그 이치가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술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술수는 좌도(左道)와 사벽(邪僻)임이 분명하다.<sup>14)</sup> 경방은 초연수에게 일찍이 역학(易學)을 배웠는데, 초연수가 항상 말하기를, “내 역학의 도를 터득하고, 그 때문에 몸을 망치는 자는 경방일 것

8) 몽기(蒙氣):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류권의 공기를 가리킨다. 경방은 음기가 지나치게 성하여 생긴 안개 같은 종류를 몽기라고 불렀다. 낭의(郎顛)는 이를 “긋은 날만 오래될 뿐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난기(亂氣)인데, 안개와 비슷하다”라고 풀이하였다. 괘기설(卦氣說)에서 안개가 끼어서 기후가 평상시와 달라지는 것은 잡괘(雜卦)가 소식괘(消息卦)의 쓰임을 막는 상태이며, 인간사로 말하면, 신하들이 힘을 모아 군주와 싸워 군주가 이길 수 없는 상태이다.(朱伯崑, 『역학철학사』, 제1권, 330쪽, 소명출판)

9) 陰陽災變者, 如京房傳所論, 蒙氣日輝, 以占人事, 而消息卦臣下卦, 相乘爲孽者也. 其術本起於孟喜, 而京房增飾之耳. 此, 易家之異端. 房以此殺身, 宜哉?(「班固藝文志論」, 『易學緒言』, 77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10) 京房之學, 假託孟喜, 直日之法, 不自孟喜始.(「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0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11) 分卦直日之法, 本出於焦贛京房.(「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19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12) 京氏之易, 分卦直日, 以占災異, 非田何丁寬之舊法也.(「班固藝文志論」, 『易學緒言』, 78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13) 京房之學, 亦傳會爲說, 非洙泗之嫡傳也.(「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1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14) 理無所據, 占乃有驗, 明其術爲左道邪僻.(『易學緒言』, 「唐書卦氣論」, 119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이다.(得我道以亡身者, 必京生也.)”라고 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경방은 중서령(中書令) 석현(石顯)이 국정을 농단한다고 탄핵했다가 오히려 석현의 참소를 당해 41세의 나이로 기시(棄市)의 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경방의 순탄치 못했던 인생역정은 그의 음양재변설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이처럼 경방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은 그 스스로 자초한 결과일 뿐이라고 정약용은 조롱하였다.<sup>15)</sup>

### Ⅲ. 벽괘설의 기원에 대한 고찰

정약용의 추이설(推移說)은 벽괘설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학설이다. 역학사적으로 경방은 벽괘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서·경방전』의 주(注)에서 안사고(顔師古)는 맹강(孟康)<sup>16)</sup>의 설을 인용하여 소식괘(消息卦)를 벽괘라고 명명한 최초의 인물이 경방이었다고 하였다.<sup>17)</sup> 그러나 정약용은 벽괘의 명칭은 경방 이전부터 있었지만, 공·후·경·대부괘의 명칭은 경방에 의해 새롭게 부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벽괘라는 명칭이 경방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역(易)』의 도(道)는 십이벽괘의 추이(推移)일 따름이다. 만약에 이런 십이벽괘의 추이법이 없었다면, 포희씨(庖犧氏)가 애초에 획괘(畫卦)할 필요도 없었거니와, 그 누가 획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즉 벽괘라는 명칭은 아득한 옛날부터 우뚝 솟은 듯 분명하였으니, 반드시 삼고(三古) 시대부터 이미 이 벽괘라는 명칭이 있었을 것이며, 한유(漢儒)가 새롭게 내세운 것이 아니다. 【50연괘(衍卦)의 이름에서 예컨

15) 房以此亡身, 宜哉! (『易學緒言』, 『唐書卦氣論』, 119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16) 맹강(孟康)은 삼국시대 조위(曹魏) 집권 시기의 인물. 훈고(訓詁)와 고거(考據)에 정통하였으며, 『한서음의(漢書音義)]를 저술하였으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안사고(顔師古)의 『한서집주(漢書集注)]』, 역대원(鄺道元)의 『수경주(水經注)]』, 이선(李善)의 『문선주(文選注)]』 등에 그의 주해(注解)가 인용되고 있다.

17) 漢書京房傳孟康注云, “房, 以消息卦爲辟. 辟, 君也. 息卦曰太陰, 消卦曰太陽, 其餘卦曰少陰少陽, 謂臣下也.” (『易學緒言』, 『唐書卦氣論』, 120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대 수(隨)·고(蠱)·건(蹇)·해(解)·손(損)·익(益) 등은 모두 추이(推移)의 의미에 입각하여 괘명(卦名)을 지은 것인데, 이름을 지을 처음부터 이미 이러하였다면 벽괘라는 명칭도 반드시 옛날부터 우뚝했을 것이다.】  
 (「당서괘기론」)<sup>18)</sup>

정약용에 따르면, 벽괘라는 명칭은 한유(漢儒)들에 의해 새롭게 정립된 명칭이 아니다. 그는 벽괘라는 명칭이 삼고(三古) 시대 이후로 이미 있었을 뿐 아니라, 벽괘가 다른 나머지 괘들의 변화를 지배한다는 개념도 역시 유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sup>19)</sup> 그러나 정약용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문헌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그는 추이법(推移法)이 『주역』의 획괘(畫卦)의 원리이기 때문에 추이법의 근간이 되는 벽괘도 당연히 『주역』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되어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흥미롭게도 정약용은 괘명(卦名)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즉 괘명을 분석해보면, 복희씨가 괘명을 처음으로 부여하였을 때, 벽괘로부터 추이되어 다른 괘들이 성립되는 이치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 「당서괘기론(唐書卦氣論)」에서는 수(隨)·고(蠱)·건(蹇)·해(解)·손(損)·익(益) 등의 괘명을 거론하였고, 「이씨절중초(李氏折中鈔)」에서는 수(隨)·송(訟)·건(蹇)·환(渙)·절(節)·손(損)·익(益)·승(升)·취(萃) 등의 괘명을 제시하였다. 괘명과 괘변설에 관한 분석은 「이씨절중초」에서 더욱 상세하게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씨절중초」를 중심으로 정약용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자.

하사(下土)는 무지(無知)한 까닭에 괘변(卦變)의 설(說)이 우번(虞翻)으로부터 일어났다고 말하고, 중사(中土)는 조금 아는 것이 있어 괘변의 뜻이 본래 공자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하고, 상사(上土)만이 홀로 깨달은 바가 있어 말하기를, 괘변의 방법이 복희씨가 괘를 명명(命名)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한다. 그것은 왜 그러한가? ‘수(隋)’와 ‘따를 수(隨)’자와 ‘떨어질 타

18) 易之爲道，十二辟推移而已。若無此法，庖犧氏，原不必畫卦。何者畫卦，無所用耳。然則，辟卦之名，遙遙巍巍，必自三古之時，已有此名，非漢儒之所新立也。【五十衍卦之名，若隨·蠱·蹇·解·損·益之等，皆以推移之義而立名。立名之初，已然，則辟卦之名，必高古在昔矣。】(「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4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19) 辟卦之名，自古有之，以統諸卦。(「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1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墮)’자는 본래 서로 통하니, 수(隨)자는 높은 데에서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수괘(隨卦)는 비괘(否卦)로부터 왔으니, 높은 산꼭대기로부터 떨어져 지극히 낮은 땅에 이르니 【상(上)이 일(一)로 감】 이것을 일러 ‘수(隨)’라고 한다. 추(追)와 수(隨)의 두 글자는 또한 본래 서로 통하니, 만약 세 사람이 같이 길을 떠났으면, 그 중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뒤로 떨어져, 갑자기 몇 발자국 뒤에 있으니 【상(上)이 일(一)로 감】 이것을 곧 이듬하여 추(追)라고 하고, 또한 수(隨)라고 하니, 이 역시 떨어짐(墮落)의 뜻인 것이다. 복희씨가 괘를 처음으로 이름지을 적에, 원래 괘변의 뜻을 위주로 명명(命名)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에 저 아득한 교역(交易)의 설(說)을 가지고, 하늘이다 땅이다 말하고 있으니, 그 때늦음은 어찌된 일인가! 그런데 괘변설이 어찌 수괘(隨卦)의 경우에만 해당하겠는가? 송괘(訟卦)는 두 입(兩口)이 서로 마주보고 분별하는 형상이니, 만일 [송괘(訟卦)가] 중부괘(中孚卦)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송(訟)이라고 명명(命名)되지 않았을 것이다. 건괘(蹇卦)는 다리 한 쪽이 못쓰게 된 것을 가리키니, 만일 [건괘(蹇卦)가] 소과괘(小過卦)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건(蹇)이라고 명명(命名)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건(乾)의 얼음이 변하여 물이 되니, 이것을 이듬붙여 환(渙)이라고 한 것이니, [환괘(渙卦)가] 비괘(否卦)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건(乾)의] 얼음이 있을 리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진(震)의 다님(行)을 위로 뽑는 것을 이듬 붙여 절(節)이고 한 것이니, [절괘(節卦)가] 태괘(泰卦)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대나무가 있을 리 없을 것이다. 손괘(損卦) · 익괘(益卦) · 승괘(升卦) · 취괘(萃卦) 등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으니, 복희씨가 괘를 명명할 때에도 모두 괘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것인데, 성급하게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왕필(王弼)을 장자(長者)로 삼았으니, 또한 어리석지 않은가! (『이씨절중초(李氏折中鈔)』)<sup>20)</sup>

요컨대 정약용은 벽괘의 명칭이 경방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괘변설이 우번(虞翻)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역시

20) 下土無知，謂卦變之說起於虞翻。中土有知，謂卦變之義本諸孔子。上土獨見謂卦變之法已起於伏羲氏名卦之先。何也？‘隋’·‘隨’·‘墮’字，本相通。隨者自高而墮落也。卦自否來，則自至高之巔，墮到至卑之地，【上之一】斯之謂‘隨’也。‘追’·‘隨’二字，亦本相通。有若三人並行，其最居前者，落後却在數武之後，【上之一】則是名為追，亦名為隨，亦墮落之義也。伏羲名卦之初，原主卦變之義而命之為名，乃執著着交易之說，曰‘天’曰‘地’，何其晚也？豈唯隨矣！訟者兩口對辨也。不自中孚則卦不可以名訟也。蹇者一足偏廢也，不自小過，則卦不可以名蹇也。乾冰化水，是名為渙。不自否，則無冰矣。震行上抽，是名為節。不自泰，則無竹矣。損·益·升·萃，無不然者，伏羲名卦，悉由卦變如此而悍然不服，猶云，王弼為長者，不亦愚哉！（『李氏折中鈔』，『易學緒言』，222～223쪽，『定本與猶堂全書 17』）

부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벽괘와 괘변은 『주역』이 성립될 때 동시에 성립된 것이며, 한유(漢儒)들에 의하여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약용은 복희씨가 64괘의 괘명(卦名)을 지을 때 이미 괘변의 원리에 의거했다고 보았다. 만약 괘변의 원리에 입각해서 괘명을 지었다면 64괘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근거가 되는 십이월괘(十二月卦)도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 당승(唐僧) 일행(一行)이 저술한 『괘의(卦議)』에 따르면, 십이월괘는 원래 맹희(孟喜)의 『맹씨장구(孟氏章句)』로부터 나온 것이다.<sup>21)</sup> 그러므로 벽괘라는 명칭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맹희의 십이월괘가 먼저 있었고, 경방이 그것을 벽괘라고 명명했을 뿐이다.<sup>22)</sup> 따라서 경방의 벽괘 이전에 맹희의 십이월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벽괘라는 명칭보다 오히려 소식괘(消息卦)라는 명칭이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다. 소식(消息)이란 단어는 『단전』에도 나온다.<sup>23)</sup> 따라서 『역전』이 형성되었을 시기에 소식이라는 관념도 이미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벽괘라는 명칭이 경방 이전에 쓰였다는 아무런 전거(典據)도 발견되지 않는 형편이고 보면, 벽괘라는 명칭이 『주역』이 성립했을 시기에 이미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정약용의 추론은 무리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벽괘와 소식괘는 십이월괘의 다른 명칭이다. 그러나 벽괘라고 부르건 소식괘라고 부르건간에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진정한 쟁점은 그 명칭이야 어쨌든 간에 그 명칭으로써 지칭하는 바의 대상이 경방 이전에도 존재했는가 하는 데 있다. 정약용의 발언의 진의(眞意)도 벽괘라는 명칭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 십이월괘가 『주역』의 성립에 필수적인 요소라는데 있다. 정약용은 십이월괘가 없었다면 그것을 활용한 괘변(卦變)의 원리도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고, 괘변의 원리가 없었다면 그것에 연계된 「단전」의 문구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설령 벽괘가 경방에 의해서 부여된

21) 唐一行卦議曰, “十二月卦出于孟氏章句. 其說易本于氣. 而後以人事明之.”(『新唐書』, 卷二十七; 『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3쪽, 『定本 興猶堂全書 17』)

22) 십이월소식괘(十二月消息卦)가 맹희(孟喜)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설은 당승(唐僧) 일행(一行)이 『괘의(卦議)』에서 언급한 것이다.(張文智, 『孟·焦·京易學新探』, 171쪽, 齊魯書社, 2013)

23) 박괘(剝卦)의 「단전(彖傳)」에 “君子尚消息盈虛 天行也.”라 하였고, 풍괘(豐卦)의 「단전」에 “天地盈虛, 與時消息”이라고 함.

명칭이고, 따라서 그 벽괘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 한대 이후부터라고 하더라도 십이월괘는 매우 오래된 연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를 갖고 있는 견해인 것처럼 보인다. 모기령(毛奇齡)은 십이월괘를 한유(漢儒)들의 학설에 귀속시켰으나, 상병화(尙秉和)는 이러한 견해가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그 근거로서 동진(東晉)의 간보(干寶)의 『주례(周禮)』 주(注)에서 『귀장(歸藏)』을 인용하였는데, 거기에 십이월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는 점을 들었다.<sup>24)</sup> 경방 이전에도 벽괘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정약용의 주장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지만, 십이월괘가 경방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다.

#### IV. 경방의 벽괘설과 분괘직일법에 대한 비판

경방역학은 한대(漢代)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한대 관방(官方) 철학의 발현으로 간주된다.<sup>25)</sup> 경방학설의 상세한 체계는 『개원대연력(開元大衍曆)』에 수록되어 있어서 그 개요를 알 수 있다.<sup>26)</sup> 『개원대연력』은 당(唐) 현종(玄宗)이 조칙을 내려 승려 일행(一行) 등으로 하여금 만들게한 당(唐)의 대표적 역법(曆法)으로서, 『역술(曆術)』 7편, 『약례(略例)』 1편, 『역의(曆議)』 10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sup>27)</sup> 727년에 그 초고(草稿)가 만들어졌으나, 일행이 중간에 죽자 현종은 장열(張說)과 진현경(陳玄景)으로 하여금 729년에 완성하도록 하였다. 신작(申綽)<sup>28)</sup>의

24) 清儒毛西河等, 動以月卦屬之漢人, 此大誤也. 干寶周禮注引歸藏云, “復子, 臨丑, 泰寅, 大壯卯, 大辰, 乾巳, 姤午, 遯未, 否申, 觀西, 剝戌, 坤亥”. 是, 月卦已見於二易.(尙秉和, 『周易尙氏學』, 8쪽, 中華書局, 2010)

25) 朱伯崑, 『역학철학사』, 제1권, 284쪽, 소명출판, 2013.

26) 至唐一行大衍曆其說最詳.(『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2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27) 開元九年, 詔僧一行, 作新曆, 推大衍數, 立術以應之, 十五年草成, 而一行卒, 詔張說與曆官陳玄景等, 次爲曆術七篇, 略例一篇, 曆議十篇.(『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3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28) 신작(申綽)의 설은 『역학서언』의 「당서괘기론」에서 인용되고 있다. 신작(申綽, 1760-1828)은 조선(朝鮮) 후기의 유학자로서 정약용과 친분이 두터웠다. 호는 석천(石泉)이며. 『시차고(詩次故)』, 『상차고(尙次故)』, 『역차고(易次故)』, 『노자지략(老子旨略)』,

설에 따르면, 『위서(魏書)·율력지(律曆志)』와 『오대사(五代史)·사천고(司天考)』<sup>29)</sup>의 「효상도(爻象圖)」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당서(唐書)·역지(曆志)』의 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sup>30)</sup> 일행은 『대연력』에서 경방 벽괘설의 대략적 체계를 제시하였는데,<sup>31)</sup> 「당서괘기론」에 다음과 같은 도표로 소개되어 있다.

常氣	四正卦	始卦	中卦	終卦
冬至	坎初六	公 中孚	辟 復	侯 屯 內
小寒	坎九二	侯 屯 外	大夫 謙	卿 睽
大寒	坎六三	公 升	辟 臨	侯 小過 內
立春	坎六四	侯 小過 外	大夫 蒙	卿 益
雨水	坎九五	公 漸	辟 泰	侯 需 內
驚蟄	坎上六	侯 需 外	大夫 隨	卿 晉
春分	震初九	公 解	辟 大壯	侯 豫 內
清明	震六二	侯 豫 外	大夫 訟	卿 蠱
穀雨	震六三	公 革	辟 夬	侯 旅 內
立夏	震九四	侯 旅 外	大夫 師	卿 比
小滿	震六五	公 小畜	辟 乾	侯 大有 內
芒種	震上六	侯 大有 外	大夫 家人	卿 井
夏至	離初九	公 咸	辟 姤	侯 鼎 內
小暑	離六二	侯 鼎 外	大夫 豐	卿 渙
大暑	離九三	公 履	辟 遯	侯 恒 內
立秋	離九四	侯 恒 外	大夫 節	卿 同人
處暑	離六五	公 損	辟 否	侯 巽 內
白露	離上九	侯 巽 外	大夫 萃	卿 大畜

『춘추좌씨전례(春秋左氏傳例)』 등의 저술이 있다.

- 29) 『오대사(五代史)』에는 『구오대사(舊五代史)』와 『신오대사(新五代史)』가 있는데,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후자를 가리킨다.
- 30) 申應教【綽】云, “魏書律曆志, 亦有此說, 稍詳. 然, 不言傳授, 所自五代史司天考爻象圖, 亦有此法. 與唐志互有詳略.”(「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1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 31) 十二辟卦之外, 又以諸卦列之, 以公·侯·卿·大夫, 其法亦起於京房, 其說槩見於『稽覽圖』.(「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19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秋分	兌初九	公 賁	辟 觀	侯 歸妹 內
寒露	兌九二	侯 歸妹 外	大夫 无妄	卿 明夷
霜降	兌六三	公 困	辟 剝	侯 艮 內
立冬	兌九四	侯 艮 外	大夫 既濟	卿 噬嗑
小雪	兌九五	公 大過	辟 坤	侯 未濟 內
大雪	兌上六	侯 未濟 外	大夫 蹇	卿 頤

이처럼 64괘를 24절기(節氣)에 배당하여 일년(一年) 사계(四季)의 변화에 연계시켜 인사(人事)를 예측하는 이론을 괘기설(卦氣說)이라고 한다. 괘기설은 음양재변설(陰陽災變說)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러한 학설은 맹희로부터 비롯되어 경방에게로 이어졌다.<sup>32)</sup> 경방은 64괘에서 사정괘(四正卦)인 감(坎)·진(震)·리(離)·태(兌)의 4괘를 제외하고, 나머지 60괘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오등괘(五等卦)로 나누고, 각 범주마다 12괘씩 배당하였다. 신분의 품계에 따라 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sup>33)</sup>

五等卦	十一月	十二月	正月	二月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辟卦	復	臨	泰	大壯	夬	乾	姤	遯	否	觀	剝	坤
公卦	中孚	升	漸	解	革	小畜	咸	履	損	賁	困	大過
侯卦	屯	小過	需	豫	旅	大有	鼎	恒	巽	歸妹	艮	未濟
卿卦	頤	睽	益	晉	蠱	比	井	渙	同人	大畜	明夷	噬嗑
大夫卦	蹇	謙	蒙	隨	訟	師	家人	豐	節	萃	无妄	既濟

경방이 『주역』의 64괘를 신분적 계급에 따라 구분한 것은 봉건전제(封建專制) 체제를 구축하였던 서한(西漢) 시대의 정치사회적 질서를 반영한 것이다.<sup>34)</sup> 이러한 봉건제에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은 군주(君主)이다. 경방은 벽괘를 군주의 품계에 상응하는 괘의 범주로 설정하였다. 전한서(前漢書)·오행지(五行志)의 「경방역전」에 대한 맹강(孟康)의 주(注)에서는 “벽(辟)

32) 梁韋弦, 『漢易卦氣學研究』, 2쪽, 齊魯書社, 2007.

33) 盧央, 『京房易傳解讀』, 上卷, 175쪽, 九州出版社, 北京, 2006.

34) 廖名春·康學偉·梁韋弦, 『주역철학사』, 183쪽, 예문서원, 1994.

은 군주이다(辟, 君也.)”라고 그 뜻을 풀이하였다.<sup>35)</sup> 그리고 그 밖의 나머지 괘들은 신하(臣下)에 속하는데, 신분에 따라 다시 공(公)·후(侯)·경(卿)·대부(大夫)의 품계(品階)로 분류된다고 설명하였다.<sup>36)</sup> 벽·공·후·경·대부 등의 관직(官職) 품계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그 명칭은 한대의 봉건 전제(封建專制) 체제하에서 관방(官方) 사회의 신분적 질서를 반영한다. 그런데 벽괘는 군주에 속한 괘이기 때문에, 오직 천자(天子)만이 벽괘를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排他的) 권리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약용이 「당서 괘기론」에서 소개하고 있는 ‘혹자(或者)’의 견해는 경방역의 관점에서 벽괘의 의미를 사회적 신분과 관련시켜 풀이한 것이다.<sup>37)</sup>

혹자가 말하였다. “벽괘(辟卦)의 ‘벽(辟)’자는 이 12괘를 군주에게 배속하여, 군주의 일을 점치는 까닭에 벽괘라고 부르는 것이지, 여러 괘의 가운데 이 12괘를 군주로 삼아 나머지 괘들을 통섭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경방도 역시 소식괘를 벽괘에 속하게 하여 길흉을 추험(推驗)하였다.”<sup>38)</sup>

위의 인용문에서 혹자(或者)는 경방과 마찬가지로 ‘벽괘(辟卦)’의 ‘벽(辟)’자에 신분계급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벽괘라는 명칭에는 천자만이 벽괘를 전용(專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정약용에 따르면, 벽괘를 군주괘로 설정한 것은 군주만이 벽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이 아니라, 벽괘가 군주괘로서 자신을 제외한 신하괘를 주재(主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치 군주가 신하를 통치하듯이, 벽괘는 64괘 중에서 벽괘를 제외한 그 밖의 다른 괘들의

35) 漢書五行志引易傳曰, “辟僞公行, 茲謂不伸”. 孟康註云, “辟, 君也.” 『漢書』, 卷二十七下之下, 「五行志」, 第七下之下.; 『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1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36) 『漢書』, 「京房傳」, 孟康註云, “房, 以消息卦, 爲辟. 辟, 君也. 息卦, 曰太陰; 消卦, 曰太陽; 其餘, 少陰少陽, 謂臣下也.”(其云, 臣下者, 蓋謂公·侯·卿·大夫也.”(『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0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37) ‘혹자(或者)’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혹자(或者)’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고, 정약용이 가상적(假想的) 질문자로 설정한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38) 或曰, “大抵, 辟卦之辟字, 以此十二卦, 屬之於君, 而以占君之事, 故謂之辟卦, 非於諸卦之中, 以此十二卦爲辟而統之也. 京房亦以消息卦, 屬之於辟, 推驗吉凶.”(『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1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변화를 통제한다. 따라서 정약용은 벽괘라는 명칭에서 신분적 의미는 버리고 단지 ‘주재(主宰)’라는 의미만 취하였다. 『이아(爾雅)·석고(釋詁)』에서 “임(林)·증(烝)·천(天)·제(帝)·황(皇)·왕(王)·후(后)·벽(辟)·공(公)·후(侯)는 군(君)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형병(邢昺)은 『이아소(爾雅疏)』에서 “천(天)·제(帝)·황(皇)·왕(王)은 오로지 천자(天子)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말이고, 공(公)·후(侯)는 오로지 제후(諸侯)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말이고, 그 밖의 나머지는 모두 통칭(通稱)이다.”라고 하였다.<sup>39)</sup>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비추어 보더라도 ‘벽(辟)’자는 군주에 대한 통칭(通稱)으로 사용될 뿐이지, 천자의 전명(專名)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자서(字書)나 운서(韻書)에서 모두 벽(辟)자를 천자와 제후의 통칭으로 썼고, 그 밖의 다른 훈고(訓詁)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방이 벽괘를 천자의 괘로 삼고, 공(公)·후(侯)·경(卿)·대부(大夫)의 괘를 그 하위(下位)에 배열하였으니, 이것을 정명(正名)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약용의 견해이다.<sup>40)</sup>

정약용은 경방이 벽괘설을 공·후·경·대부의 신분적 품급(品級)과 연계시킨 것은 건강부회이며, 원래의 벽괘설을 왜곡시킨 것이라고 보았다. 정약용의 표현을 따르자면, 그것은 마치 몸에 붙어있는 사마귀[贅疣]처럼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덧붙인 것이요,<sup>41)</sup> 뱀을 그려놓은 뒤에 있지도 않은 사족(蛇足)을 첨가한 것과 같다. 요컨대, 교활한 한유(漢儒)들이 쓸데없이 공·후·경·대부의 괘를 만들어냄으로써 역가(易家)의 부혹(鄙惑)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 정약용의 비판이다.<sup>42)</sup> 정약용의 관점에 의거한다면,

39) 天·帝·皇·王惟謂天子, 公·侯惟謂諸侯, 餘皆通稱.(『爾雅注疏』1, 105-108쪽, 소명출판, 2004.)

40) 辟之爲字, 只是君稱, 本非天子之專名. 『爾雅』云, “皇·王·后·辟·公·侯, 君也”. 邢氏疏曰, “皇·王”, 唯謂天子. 公·侯唯謂諸侯, 餘皆通稱. 故字書韻書, 並云, 天子·諸侯, 通稱曰辟, 無異訓也. 今以辟卦爲天子之卦, 而別以公·侯, 列于下位, 豈所謂正名乎?(『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7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41) 辟卦之名, 自古有之, 以統諸卦. 而焦贛·京房之等, 添出贅疣, 爲公·侯·卿·大夫之說耳.(『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2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42) 唯所謂公·侯·卿·大夫之卦, 是漢儒狡獪, 別生贅疣, 以爲易家之鄙惑者.(『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4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초공(焦贛)과 경방이 벽(辟)을 존숭하여 제(帝)로 삼고, 이와 별도로 공(公)·후(侯) 등의 괘를 배열한 것은 망령되어 조작해 낸 것이지, 결코 수사(洙泗)의 고법(古法)이 될 수 없다.<sup>43)</sup> 따라서 정약용은 초공과 경방의 학설을 ‘역도지자정(易道之紫鄭; 역도의 순수성을 빼앗은 것)’<sup>44)</sup>으로 간주하여 논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한다.<sup>45)</sup>

이러한 이유로 정약용은 벽괘의 지위를 나머지 괘들의 변화를 지배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정약용은 벽괘를 제외한 나머지 괘들을 연괘(衍卦)라고 불렀는데, 연괘는 경방역의 체계에서는 신하괘(臣下卦), 즉 잡괘(雜卦)에 해당된다. 다산역의 체계에서 연괘는 공(公)·후(侯)·경(卿)·대부(大夫)의 신하괘 전부를 통틀어 일컫는 명칭이다. 정약용은 경방의 12벽괘에 소과(小過)와 중부(中孚)의 두 괘를 추가하였으므로, 합치면 14벽괘가 된다. 12벽괘는 사시지괘(四時之卦)라고도 하고, 소과(小過)·중부(中孚)는 재윤지괘(再閏之卦)라고도 한다. 그리고 64괘에서 14벽괘를 뺀 것이 오십연괘(五十衍卦)가 된다. 오십연괘는 사시지괘와 재윤지괘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된 것으로서 오십연괘 각각은 서로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따라서 연괘(衍卦)들 사이에 다시 공·후·경·대부라는 품급(品級)의 차별이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sup>46)</sup> 정약용은 경방 학설에 내포된 불합리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43) 尊辟爲帝，又列公侯之卦，明是焦贛京房之妄造，非洙泗之古法也。(『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8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44) ‘자정(紫鄭)’이란 『논어(論語)·양화편(陽貨篇)』에 “子曰，惡紫之奪朱也，惡鄭聲之亂雅樂也。(자주빛이 붉은 빛을 빼앗는 것을 미워하고, 정나라의 소리가 아악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한 데서 유래된 말이다. 자색(紫色)은 간색(間色)이며, 주색(朱色)은 정색(正色)인데, 요염한 자색(紫色)이 담백한 주색(朱色)을 빼앗는다. 정성(鄭聲)은 정(鄭)나라의 음란한 속악(俗樂)이며, 아성(雅聲)은 정악(正樂)이니, 아성(雅聲)과 정성(鄭聲)을 같이 연주하면 정성이 아성을 압도하게 된다. 즉 ‘자정(紫鄭)’이란 정도(正道)를 어지럽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45) 辟卦之名，自古有之。焦贛·京房之等，妄爲此說，附會分排，畫蛇添足，爲易道之紫鄭，不得不辨。【京房之學，假託孟喜，直日之法，不自孟喜始。】(『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0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46) 四時之卦，十二也。再閏之卦，二也。於此乎受衍者，其位相等，又安得有公·侯·卿·大夫之品級乎?(『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0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천자(天子)에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64괘를 통용하여 그 길흉을 점친다. 천자는 벽괘(辟卦)를 사용하고, 상공(上公)은 공괘(公卦)를 사용하고, 대부(大夫)는 대부괘를 사용한다는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점서(占筮)하여 다른 괘를 얻으면 그것을 버리고 다시 점서한다는 것인가? 환괘(渙卦)에 “왕격유묘(王假有廟)”라고 하였고, 취괘(萃卦)에 “왕격유묘(王假有廟)”라고 하였으며, 가인괘(家人卦)에 “왕격유가(王假有家)”라고 하였거니와, 이것들은 모두 소위 경(卿)·대부괘(大夫卦)인데, 어떻게 천왕(天王)이 이를 사용하였는가? 진괘(震卦)에 “진경백리(震驚百里)”라 하였고, 진괘(晉卦)에 “강후용석마(康侯用錫馬)”라고 하였고, 풍괘(豐卦) 초구(初九)에 “우기배주(遇其配主)”라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른바 경(卿)·대부(大夫)에 해당하는 괘인데, 어떻게 제후(諸侯)가 이것을 사용하였는가? 사시(四時)·재운괘(兩闕卦)는 오십연괘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벽괘라는 명칭은 예전부터 있어 제괘(諸卦)를 통섭하였던 것인데, 초공(焦贛)과 경방(京房) 등이 쓸데없이 덧붙여 공(公)·후(侯)·경(卿)·대부(大夫)의 설을 꾸며내었을 따름이다.<sup>47)</sup>

정약용은 경방의 분괘직일법(分卦直日法)에 따라 분류한 괘의 품계(品階)와 그 괘에 상응되는 역사(易詞)의 내용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환괘(渙卦)와 취괘(萃卦)의 괘사(卦辭)에 나오는 “왕격유묘(王假有廟)”는 명백히 천자에 속하는 역사(易詞)지만, 경방은 환괘(渙卦)를 경괘(卿卦)로 분류하였고, 또 취괘(萃卦)를 대부괘(大夫卦)로 분류하였다. 다시 말해 경방이 부여한 품계는 역사(易詞)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경방이 분류한 기준에 의거해서 괘명과 품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卦名	品階	易詞
渙卦	卿卦	“王假有廟”(卦辭)
萃卦	大夫卦	“王假有廟”(卦辭)
家人卦	大夫卦	“王假有家”(九五)
震卦	方伯·監司	“震驚百里”(卦辭)
晉卦	卿卦	“康侯用錫馬”(卦辭)
豐卦	大夫卦	“遇其配主”(初九)

47) 自天子達於庶人，通用六十四卦，以占其吉凶。天子用辟卦，上公用公卦，大夫用大夫之卦，有是理乎?(『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1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정약용은 경방이 이처럼 신분의 품계에 따라 64괘를 분류한 데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경방의 분류에 자의적 부분이 많지만 그 전거(典據)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방은 자신의 체계가 의거하는 바를 은밀하게 숨기고 있을 뿐이다. 『춘추좌씨전』에 필만(畢萬)이 점서(占筮)하여 ‘준지비(屯之比)’를 얻었는데, 신료(辛廖)가 이를 풀이하기를 공후(公侯)의 괘라고 하였다. 그리고 숙손표(叔孫豹)의 점서(占筮)에서 ‘명이지겸(明夷之謙)’을 얻었는데, 복초구(卜楚丘)가 풀이하여 경위(卿位)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경방이 이러한 종류의 풀이를 은연중에 끌어온 까닭에, 경방의 분류체계를 보면 준괘(屯卦)는 과연 후괘(侯卦)의 서열(序列)에 있고, 명이괘(明夷卦)는 과연 경괘(卿卦)의 서열(序列)에 있다. 그러나 경방의 분류가 『춘추좌씨전』의 서례(筮例)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예를 들면, 비괘(比卦)는 천자친후지괘(天子親侯之卦)인데도 경위(卿位)에 놓았으며, 익괘(益卦)는 왕용향제지괘(王用享帝之卦)인데도 불구하고 경위(卿位)의 서열에 놓았으니, 경방의 방법을 준거(準據)로 삼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48)</sup>

그 다음으로 경방이 소식괘를 사상(四象)의 체계와 연관지어 분류한 것에 대해서도 정약용은 그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한서·경방전』의 주(注)에서 맹강(孟康)은 사상(四象)의 용어를 써서 64괘를 분류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벽괘는 태음(太陰)인 식괘(息卦)와 태양(太陽)인 소괘(消卦)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나머지 신하괘는 소음(少陰)과 소양(少陽)으로 이루어져 있다.

辟卦	消卦=太陽	復·臨·泰·大壯·夬·乾
	息卦=太陰	姤·遯·否·觀·剝·坤

48) 然且，依係憑據，隱有所靠，『春秋傳』，畢萬筮仕，遇屯之比，辛廖占之曰，公侯之卦，叔孫豹筮命，遇明夷之謙，卜楚丘占之，曰，明而未融，法當卿位。若此之類，隱然授引，故今觀所列，屯卦果在侯列，明夷果在卿列，若使回護者，見之，必以爲言，審如是也。晉文公，遇大有，卜偃謂之，公用享王之卦，今何列之於侯卦乎？秦穆公遇蠱，卜徒父，謂之，千乘護侯之象，今何列之於卿卦乎？比者，天子親侯之卦，列于卿位，益者，王用享帝之卦，列于卿位，如此之類，不可勝數，其法豈可準耶？(『唐書卦氣論』，『易學緒言』，124～125쪽，『定本 與猶堂全書 17』)

정약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분류체계는 완전히 잘못된 명명법(命名法)에 의거하고 있다. 복(復)·임(臨)·태(泰)·대장(大壯)·괘(夬)·건(乾)을 식괘(息卦)로 부르고, 구(姤)·둔(遯)·비(否)·관(觀)·박(剝)·곤(坤)을 소괘(消卦)라고 부른 것은 한유(漢儒)들의 전통적 명명(命名) 방식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식괘(息卦)를 태음(太陰)이라고 하고, 소괘(消卦)를 태양(太陽)이라고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sup>49)</sup> 식괘에서는 양이 점차로 증가하는데 왜 태음(太陰)이 되며, 소괘에서는 음이 점차로 증가하는데 왜 태양(太陽)이라고 하는가? 정약용에 따르면, 경방이 이러한 과오를 범하게 된 까닭은 노양(老陽)·노음(老陰)·소양(少陽)·소음(少陰)이 설시법(揲蓍法)에서 유래된 명칭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벽괘라는 이름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한유(漢儒)들이 벽괘를 소괘(消卦)와 식괘(息卦)로 나누었다. 식괘는 복(復)·임(臨)·태(泰)·대장(大壯)·괘(夬)·건(乾)이며, 소괘는 구(姤)·둔(遯)·비(否)·관(觀)·박(剝)·곤(坤)이다. 식괘는 양(陽)이 성장하는 것이니, 여저 태음(太陰)이라고 말하겠는가? 소괘는 음(陰)이 성장하는 것인데 어떻게 태양(太陽)이라고 말하는가? 역가(易家)에서 노음(老陰)·노양(老陽)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은 18번(變)할 때 3설(揲)하여 모두 기수(奇數)를 얻은 경우 노양(老陽) 구(九)가 되며(3+3+3=9), 3설(揲)하여 모두 우수(偶數)를 얻은 경우는 노음(老陰)이 되니, (2+2+2=6) 아무런 까닭도 없이 명명(命名)하여, 이것은 태양(太陽)이고 저것은 태음(太陰)이라고 하니, [과연] 옳은 것인가? 소양(少陽)과 소음(少陰)도 역시 칠(七)과 팔(八)에 대해 정해진 명칭이니, 오십연괘(五十衍卦)를 무슨 까닭에 소양(少陽)과 소음(少陰)으로 부르겠는가?<sup>50)</sup>

49) 정약용의 견해는 송대(宋代)의 송기(宋祁)가 제시한 견해와 같다. 정약용과 마찬가지로 송기도 식괘(息卦)를 태양(太陽)이라고 하고, 소괘(消卦)를 태음(太陰)이라고 해야 옳다고 하였다. (宋祁曰, “注文當作息卦曰太陽, 消卦曰太陰”; 冒廣生, 『冒鶴亭京氏易三種』, 307쪽, 四川出版集團, 巴蜀書社, 2009.)

50) 辟卦之名, 自古有之. 漢儒就分消息, 息卦者, 復·臨·泰·大壯·夬·乾也, 消卦者, 姤·遯·否·觀·剝·坤也. 息卦陽長, 何以謂之太陰? 消卦陰長, 何以謂之太陽? 易家之有老陰老陽之名者, 以十有八變之時, 三揲皆奇者爲老陽九 【三三三】 三揲皆偶者爲老陰六 【二二二】 無故命之曰, ‘爾是太陽, 爾是太陰’, 可乎? 少陽少陰, 亦七八之定名, 五十衍卦, 何以謂之少陽少陰也? 京房之學, 亦傳會爲說, 非洙泗之嫡傳也. (『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0~121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그러면 이제 분괘직일법(分卦直日法)에 대해 다루어 보기로 하자. 괘기설에서는 『주역』의 64괘를 일년의 절기(節氣)와 시일(時日)에 배당하여, 그 괘상(卦象)으로 절기의 변화를 설명한다. 괘기설에 따르면, 사시(四時)에는 각각 전담하여 주관하는 기(氣)가 있으며, 각 괘에는 주관하는 시(時)가 있다. 따라서 매일(每日)을 어느 괘(卦), 어느 효(爻)의 날이라고 정하고, 그 길흉을 살피게 된다. 그런데 맹희의 괘기설에서는 64괘를 사시(四時) · 12월 · 24절기 · 72절후에 배분하기는 하였으나, 일수(日數)와 괘의 결합을 통해 재앙과 길흉을 점후(占候)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경방은 맹희의 괘기설을 발전시켜 사정괘를 제외한 60괘와 1년의 365와 1/4일을 배합시키고, 아울러 60괘와 72후의 배합을 시도했다.<sup>51)</sup> 『한서 · 경방전』의 맹강(孟康) 주(注)에서는 분괘직일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맹강이 말하였다. “분괘직일법에서는 한 개의 효(爻)로써 하루를 주관하게 하고, 64괘 중에서 60괘를 360일에 배당한다. 64괘에서 나머지 4괘 즉 진(震) · 리(離) · 태(兌) · 감(坎)을 방백(方伯)과 감사(監司)의 관리로 삼아서 [동지(冬至)와 하지(夏至)의] 이지(二至)와 [춘분(春分)과 추분(秋分)의] 이분(二分)의 용사지일(用事之日)을 주관한다.... 또한 사시(四時)에는 각각 전담하여 주관하는 기(氣)가 있으며, 각 괘에는 주관하는 시(時)가 있다. 그 점법(占法)은 각각 그 날(日)에 따라 그 좋고 나쁨(善惡)을 살핀다.”(「당서괘기론」)<sup>52)</sup>

분괘직일법의 대략적 체계는 『역위(易緯) · 계람도(稽覽圖)』에서도 제시되어 있는데,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그 대략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먼저 괘기(卦氣)가 중부(中孚)에서 시작됨을 말하고, 감(坎) · 리

51) 문재근, *한대역학(漢代易學)의 연구-괘기(卦氣) 역학의 전개를 중심으로*, 135쪽, 고려대학교, 1990.

52) 孟康曰, 分卦直日之法, 一爻主一日. 六十四卦爲三百六十日. 餘四卦, 震離兌坎, 爲方伯監司之官. 是, 二至二分用事之日. 又是四時, 各專主之氣. 各卦主時, 其占法, 各以其日, 觀其善惡也.(『漢書』, 10, 3160.; 『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19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離)·진(震)·태(兌)를 사정괘(四正卦)로 삼았으며, 60괘로 하여금 6일(日)7분(分)을 주관하게 하였다. 또 복괘(復卦)에서 곤괘(坤卦)에 이르는 12괘를 소식괘(消息卦)로 삼고, 나머지 잡괘(雜卦)는 공(公)·후(侯)·경(卿)·대부(大夫)의 후(候)를 주관하는데, 풍(風)·우(雨)·한(寒)·온(溫)을 그에 대응되는 표징(表徵)으로 삼았으니, 즉 맹희(孟喜)와 경방(京房)의 학(學)이 그것이다.(지금의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서적목록에 기록된 것도 역시 이와 동일하다.)<sup>53)</sup>

두 문헌에서 설명한 것을 종합하면, 분괘직일법의 개요(概要)는 다음과 같다.

(1) 『역위·계람도』에서 “괘기(卦氣)는 중부괘로부터 일어난다.(卦氣起中孚)”라고 하였다. 이것은 동지로부터 첫 절후가 시작하는데, 중부괘가 이에 배속된다는 것을 뜻한다.

(2) 사시(四時)에는 각각 전담하여 주관하는 기(氣)가 있으며, 각 괘에는 주관하는 시(時)가 있다. 감(坎)·진(震)·리(離)·태(兌)는 북(北)·동(東)·남(南)·서(西)의 사방(四方)에 배당되어 방백(方伯)과 감사(監司)의 역할을 맡는다. 네 괘는 사정괘(四正卦)로서 각각 24절기 중의 6절기를 주관한다. 즉 동지에서 경칩까지는 감괘(坎卦)가 쓰이고, 춘분에서 망종까지는 진괘(震卦)가 쓰이고, 하지에서 백로까지는 리괘(離卦)가 쓰이고, 추분에서 대설까지는 태괘(兌卦)가 쓰인다.

(3) 네 괘의 24효는 절기를 순서대로 주관하니, 즉 한 괘의 여섯 효에서 매 효가 한 절기씩을 주관한다. 예를 들면, 감괘(坎卦) 초육(初六)은 동지(冬至)가 되며, 구이(九二)는 소한(小寒)이 되며, 육삼(六三)은 대한(大寒)이 되고, 육사(六四)는 입춘(立春)이 되며, 구오(九五)는 우수(雨水)가 되며, 상육(上六)은 경칩(驚蟄)이 된다.

(4) 복괘(復卦)에서 곤괘(坤卦)에 이르는 12괘를 소식괘(消息卦)로 삼고, 나머지 잡괘(雜卦)를 공(公)·후(侯)·경(卿)·대부(大夫)의 품계로 분류한다.

53) 卦氣起中孚，而以坎離震兌爲四正卦，六十卦主六日七分。又以自復至坤，十二卦爲消息，餘雜卦主公·侯·卿·大夫候，風雨寒溫，以爲徵應，卽孟喜·京房之學。【今『四庫全書』，書目所記，亦如此。】(『唐書卦氣論』，『易學緒言』，119~120쪽，『定本 與猶堂全書 17』)

(5) 64괘에서 진(震)·태(兌)·리(離)·감(坎)의 4괘를 빼면 나머지는 60괘가 된다. 60괘는 12개조로 나누어져 5개의 괘가 한 조가 되며, 각 조는 12달에 배치된다. 60괘의 360효를 360일에 배당하여, 1효(爻)로써 1일(日)을 주관하게 한다.

(6) 1년에서 360일을 빼면, 5일과 1/4이 남는다.<sup>54)</sup>(365-360=5.25) 매일(每日)을 분(分)으로 환산하면 80분이 되므로, 5일은 400분이 된다.(5×80=400) 그리고 1/4일을 분으로 환산하면 20분이 된다.(80×1/4=20) 따라서 5일과 4분의 1을 합산하면 모두 420분이 된다.(400+20=420) 420분을 60괘로 나누면, 각 괘마다 7분이 배당된다.(420÷60=7) 따라서 매괘(每卦)마다 육일칠분(六日七分)이 배당된다.<sup>55)</sup>결국 육일칠분(六日七分)은 역의 64괘(卦) 중 60괘를 1년 365일과 4분의 1에 적용시켜, 매괘(每卦)마다 6일과 80분의 7을 배당한 것이 된다. 80분의 7은 0.0875가 되므로 6일과 80분의 7은 6.0875가 되며, 그 숫자에 60괘를 곱하면 365.25일이 된다.(7÷80=0.0875, 6+0.0875=6.0875, 6.0875×60=365.25)

정약용은 경방의 분괘직일법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첫째, 분괘직일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파쇄(破碎)된 이론이다. 경방은 자질구레[磊落]한 학설을 이리저리 끌어다 붙여 분괘직일(分卦直日)·육일칠분(六日七分) 등의 설을 만들어 내었으나, 어느 것 하나도 이치에 합당한 것이 없다.<sup>56)</sup> 만약 경방이 하는 방식처럼 384효를 365일과 4분의 1일에 배당하고 나면, 반드시 어긋나서 맞지 않게 된다.<sup>57)</sup> 64괘와 72후(侯)는 그 수(數)부터 다르니, 본래 서로 짝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네 괘를

54) 1년은 대략 365.2422일이므로, 여기서 360일을 빼면 5.2422일이 된다. 5.2422일은 대략 5.25이므로 5일에 1/4을 더한 것이 된다.

55) 『易緯稽覽圖』云, “卦氣起中孚. 故離坎震兌, 各主其一方, 其餘六十卦, 卦有六爻, 爻別主一日, 凡主三百六十日. 餘有五日四分日之一者, 每日分爲八十分. 五日分爲四百分. 四分日之一又爲二十分, 是四百二十分. 六十卦分之, 六七四十二卦, 別各得七分, 是每卦得六日七分也.”(魏 王弼 注, 唐 孔穎達 疏, 『周易正義』, 十三經注疏 整理本 [1], 131-132쪽, 北京大學出版社, 2000.)

56) 破碎牽纏, 無一而當乎理者也.(『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5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57) 誠以三百八十四爻, 配之於三百六十五日, 四分日之一, 必齟齬而不合, 自餘, 不必研究.(『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5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제외하고, 거기에 12괘를 보태어야만, 비로소 짝지을 수 있다. 이에, 감(坎)·진(震)·리(離)·태(兌)는 사정괘(四正卦)라고 정하여 밖으로 쫓아놓고, 그 6효를 네 괘에 곱하여 24기(氣)에 배당한 것이다.<sup>58)</sup>

둘째, 일효(一爻)를 일기(一氣)에 배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계사전」에서 “효는 변화된 것을 말한 것이다.(爻者, 言乎變者也)”라고 하였으니, 효(爻)란 변괘(變卦)의 명칭이다. 육효(六爻)는 육획(六畫)이 아닌데, 그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맞지 않는다.<sup>59)</sup>

셋째, 감(坎)·진(震)·리(離)·태(兌)가 팔괘(八卦)일 때에는 북(北)·동(東)·남(南)·서(西)의 사방(四方)을 주관하지만, 이미 중괘(重卦)로 된 뒤에는 더 이상 사방괘(四方卦)라고 불릴 수 없다. 그리고 이 네 괘를 제외한 다른 괘가 사시(四時)를 주관한다는 것도 역시 이미 이치에 맞지 않는다.<sup>60)</sup>

넷째, 역(曆)이란 일월오성(日月五星)의 질서[紀]이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사시(四時)가 어긋나게 된다. “『주역』으로써 천체의 운행질서를 상징한다[以易象曆]”는 것은 가능하지만, “천체의 운행질서로써 『주역』을 상징한다는 것[以曆象易]”은 가능하지 않다.<sup>6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漢)·진(晉) 이래로 “이력상역(以曆象易)”하였으니, 통할 리가 없다는 것이 다산의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의 배후에는 “『역(易)』이란 곧 상(象)이다”라는 정약용의 신념이 자리잡고 있다. 상(象)이란 성인(聖人)이 ‘방불지사(髣髴之似)’, 즉 ‘그 대상을 가장 그럴듯하게 닮은 형태를 취해서 만든 상징’일 뿐이다.<sup>62)</sup> 따라서 상(象)이란 대상을 모사(模寫)하여 만든 상징기호이다. 대상을 모사하여 상징기호를 만든다는 말은 옳지만, 상징기호를 모사

58) 六十四卦, 七十二候, 厥數不同, 本非搭配之物; 必去四卦, 加增十二, 迺可相配. 於是, 坎離震兌, 黜之爲四正, 以其六爻, 配之於二十四氣.(「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6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59) 況爻之爲字, 本是變卦之名, 非一畫二畫之謂也. 以畫爲爻, 原是失實, 餘不必言. 經曰, “爻者, 言乎變者也. 爻豈是畫耶?”(「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5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60) 坎離震兌, 其在八卦之時, 雖主四方. 既爲重卦, 不得復以四方之卦名之. 除此四卦, 使主四時, 已屬非理. 況爻者變卦也, 六爻非六畫, 安得以一爻, 配一氣哉?(「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0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61) 以易象曆, 可也. 漢晉以降, 以曆象易, 豈可通乎? 曆也者, 毫髮有差, 四時乖舛. 奚暇象易而爲之哉!(「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7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62) 聖人於此, 亦取其髣髴之似而已.(「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7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하여 대상을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처럼 정약용은 분괘직일법을 비판한 뒤에 그 대신 보다 단순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12벽괘로써 1년의 12개월을 상징하게 하고, 소과(小過)·중부(中孚)의 두 괘는 재운지괘(再閏之卦)로써 윤달을 상징하고, 건(乾)·곤(坤)의 두 괘는 천(天)·지(地)를 상징하였다. 이렇게 해서 64괘에서 건(乾)·곤(坤)을 제외한 나머지 62괘로써 “오세재운(五歲再閏)”을 상징한 것이다.<sup>63)</sup>(64卦—乾·坤=62卦, 12個月×5=60個月, 六十個月+兩閏月=62卦)

## 5. 결론

필자는 본고를 통해 경방의 벽괘설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적 관점을 서술하였다. 정약용은 경방역으로부터 벽괘라는 용어를 차용하였으나, 경방의 벽괘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비판적 관점을 유지했다. 역학사에서 경방은 벽괘라는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정약용은 이러한 통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벽괘라는 용어의 기원을 『주역』의 성립시기로 소급시켰다. 당승 일행의 『괘의』에 따르면, 맹희의 십이월소식괘(十二月消息卦)가 먼저 있었고, 경방이 그것을 벽괘(辟卦)라고 명명(命名)했을 뿐이다. 이와는 반대로 정약용은 벽괘라는 이름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한유(漢儒)들이 벽괘를 소괘(消卦)와 식괘(息卦)로 나누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약용은 자신의 추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문헌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벽괘라는 용어가 현대의 경방 이후로 출현했다고 하더라도 십이월괘가 매우 오래된 연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를 갖고 있는 견해인 것처럼 보인다. 경방 이전에도 벽괘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정약용의 주장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지만, 십이월괘가 경방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다.

63) 大抵, 易之爲道, 象而已. 故十二辟卦, 以象四時. 中孚·小過, 以象兩閏. 於是, 乾坤二卦, 以象天地; 餘六十二卦, 以象五歲再閏、六十二月之數. 聖人, 於此, 亦取其髣髴之似而已.(『唐書卦氣論』, 『易學緒言』, 127쪽, 『定本 與猶堂全書 17』)

그리고 경방은 한대(漢代)의 신분제적 질서에 상응하는 벽(辟)·공(公)·후(侯)·경(卿)·대부(大夫)의 품계(品階)에 따라 64괘를 분류하였다. 정약용은 특정한 신분에 특정한 괘들이 배당되어, 그 괘들을 전용(專用)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는 경방의 논리를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벽괘가 군주괘(君主卦)가 된다는 것을 천자만이 벽괘를 전용(專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정약용은 ‘벽(辟)’의 군주의 뜻에서 오로지 주재(主宰)한다는 의미만을 취하였다. 즉 벽괘가 중심괘가 되어 그 밖의 나머지 괘들의 변화를 통제하는 것은 마치 군주가 신하를 통치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이러한 정약용의 경방 비판이 갖는 철학적 의미는 신분제적 질서를 투영한 한대(漢代)의 『역』 해석을 비판하고, 보편적으로 『역』을 해명하고자 했다는데 있다.

한편 정약용은 경방의 분괘직일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파쇄(破碎)된 이론이라고 생각하였다. 경방은 자질구레한 학설을 이리저리 끌어다 붙여 분괘직일법 등의 이론을 만들어 내었으나, 어느 것 하나도 이치에 합당한 것이 없다는 것이 정약용의 비판이다. 경방역의 특징은 음양재변설에 있는데, 거기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은 분괘직일법이었다. 그러나 정약용은 경방의 음양재변설을 좌도(左道)와 사벽(邪僻)에 빠진 술수(術數)라고 혹평하고, 분괘직일법의 체계에 대해서도 역가(易家)의 부장(蔽障)이며, 역가의 이단(異端)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투 고 일: 2014. 08. 04.  
 심사완료일: 2014. 08. 18.  
 게재확정일: 2014. 08. 19.

방인  
 경북대학교 인문대  
 철학과 교수

## 참고문헌

- 『易學緒言』(『定本 與猶堂全書』 제17권, 茶山學術文化財團, 2012.
- 魏 王弼 注, 唐 孔穎達 疏, 『周易正義』, 十三經注疏 整理本 [1], 北京大學出版社, 2000.
- 郭彧 著, 『京氏易源流』, 華夏出版社, 北京, 2007.
- 王謨 撰, 『京房易傳』, 武陵出版有限公司, 台北, 2001.
- 盧央 著, 『京房評傳』, 南京大學出版社, 南京, 2006.
- 盧央 著, 『京房易傳解讀』, 上下, 九州出版社, 北京, 2006.
- 冒廣生, 『冒鶴亭京氏易三種』, 四川出版集團, 巴蜀書社, 2009.
- 尙秉和, 『周易尙氏學』, 中華書局, 2010.
- 張文智, 『孟·焦·京易學新探』, 齊魯書社, 2013.
- 梁韋弦, 『漢易卦氣學研究』, 齊魯書社, 2007.
- 朱熹 撰, 廖名春 點校, 『周易本義』, 中華書局, 2009.
- 『史記』, 卷三十八, 中華書局.
- 『新唐書』, 卷二十七, 中華書局.
- 『漢書』, 11, 傳五, 中華書局.
- 朱伯崑 著, 김학권 · 김진근 · 김연재 · 주광호 · 윤석민 역, 『역학철학사』, 소명출판사, 2013.
- 廖名春 · 康學偉 · 梁韋弦 著,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4.
- 이충구 · 임재완 · 김병현 · 성당제 역주, 『이아주소(爾雅注疏)』(全6卷), 소명출판, 2004.
- 문재곤, 현대역학(漢代易學)의 연구-괘기(卦氣) 역학의 전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1990.
- 윤태현, 『경방역의 연구』, 동국대, 2000.
- 방인, 「다산역의 관점에서 본 경방의 효변설」, 『철학연구』, 제131집, 대한철학회, 2014.

## ABSTRACT

## Jeong Yagyong's Criticism on Jingfang's Bigua Theory

Bang, In

This article aims at explaining Dasan Jeong Yagyong's view on Jingfang's bigua theory of the *Zhouyi*. Jeong Yagyong's appraisals of Jingfang's theory of the *Zhouyi* lie scattered around some chapters of *Yixuexuyan* (易學緒言;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on the Classics of the Yijing*), among which *Tangshuguaqilun* (唐書卦氣論, *A Discussion on the Guaqi Theory of The Book of Tang*) is the most important one, because it includes valuable information about Dasan's critical view of Jingfang's bigua theory. In order to reconstruct Jeong Yagyong's appraisal of Jingfang's view,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se texts one by one and afterwards to piece them together.

Although Jeong Yagyong borrowed the term "bigua" from Jingfang, he maintained a negative view of Jingfang's bigua theory in broad outlines. As is well known, Jingfang is known as the scholar who used the term "bigua" (辟卦) for the first time in the tradition of the *Zhouyi* exegetics. But Jeong Yagyong raised a question about it, saying that the origin of the bigua theory could be traced far back to ancient times before Jingfang. According to Jeong Yagyong, there should be bigua in order to construct the changing rule of 64 hexagrams. By examining the hexagram name, one could know that the principle of changing hexagrams should have been applied when the author of the *Zhouyi* gave the name to each hexagram. However, he failed to provide reliable references to support

his argument.

Jingfang divided the 64 hexagrams into the five categories of Bi (辟, the Emperor), Gong (公, the Duke), Hou (侯, the Marquis), Qing (卿, the Minister), and Daifu (大夫, the Grand Master) which corresponded to the five social ranks of the Han Dynasty. However, Jeong Yagyong did not accept Jingfang's view that a certain group of hexagrams should be assigned to a certain social position and that the group of a particular social rank could use them exclusively. Therefore, the bigua does not mean that only the Emperor has the privileged right to use it. What the bigua means is that those bigua hexagrams play the role of sovereign hexagrams over the rest of the hexagrams. The role of the bigua can be compared to that of the Emperor as the bigua regulates the changes of the other hexagrams.

In terms of the Fenguazhirifa (分卦直日法; the rule of dividing and assigning the hexagrams according to the seasonal division points of the calendar), Jeong Yagyong thought that it was too sophisticated and fragmented. Jingfang's theory of Zhouyi is characterized by the theory of the yin-yang catastrophe (陰陽災變說; yinyangzaibianshuo). It was the Fenguazhirifa that gave a logical ground to the theory of the yin-yang catastrophe. However, Jeong Yagyong threw harsh remarks at Jingfang's theory of the yin-yang catastrophe, denouncing it as heresy in the history of the Yijing exegetic tradition.

To sum up, Jeong Yagyong expressed a negative view of Jingfang's view in broad outlines.

**Keywords:** Dasan (茶山), Jeong Yagyong (丁若鏞), Jingfang (京房), Yixuexuyan (易學緒言,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on the Classic of Yijing), Bigua (辟卦, sovereign hexagram), Fenguazhirifa (分卦直日法, the rule of dividing and assigning the hexagrams)

according to the seasonal division points of the calendar),  
Yinyangzaibianshuo (陰陽災變說; the theory of the yin-  
yang catastrophe)